野, 재보선 후보 단일화 놓고 신경전

'反 한나라' 구축엔 공감…"후보는 우리당" 동상이몽

4당 대표 공조 논의…민주 지역별 선대위 구성 마쳐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 후보단일화를 둘러싼 야당간 신경전이 조기에 가열되고 있다.

이번 재보선의 선거연합 성사 여부가 야권 통합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反)한나라당' 공동전선을 구축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저마다 자당 후보로의 단일화를 유인하고 있는 것.

야당이 연대해 한나라당에 맞서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뜻을 모았지만, 후보는 자당에서 내야 한다는 '동상이몽' 에 젖어있는 모양새다.

기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은 수도권 격전지 중 하나인 안산 상록을이다.

야권 내부에선 선거기간 후보단일화에 이견이 없으나 민주당의 김영환 후보와 민노·진보신당·창조한국당의 단일후보격으로 나온 임종인 후보를 놓고 벌써부터 경합이 벌어져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김 후보 공천과 관련, "여론조사 경선 과정에서 임 후보도 포함시켜 조사를 한 결과 김 후보가 큰 격차로 임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일화 협상에서 승기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 임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심상정 진보신당 전 공동대표는 논평을 내고 "김 후보는 과거 한나라당과 공조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인물로, 지난해 민주당 복당이 거부됐던 '친 MB, 무자격 후보'"라며 불가론을 내세웠다.

수원 장안과 경남 양산, 강원 강릉,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등 나머지 선거구에서도 복수의 야권 후보들이 각개약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세균, 민노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문국현, 진보신당 노회찬 등 야 4당 대표는 이날 낮 오찬회동을 갖고 재보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7일 지역별 선대위원회 및 중앙 총괄지원본부 구성을 마무리, 본격적인 재보선 체제에 돌입하는 가운데 손학규 전 대표를 수원 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물급 인사들을 각 지역 선대위에 투입키로 했다.

손 전 대표는 수원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등 이찬열 후보에 대한 지원활동을 이어갔다.

이찬열 예비후보는 5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출마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재·보선에서 야당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야당이 튼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장안선거구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손학규 전 대표와 함께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고, 튼튼한 민주당을 만드는데 밑거름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수원 장안구는 재래시장과 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제조업체나 광공업체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고 "20여년을 장안구에서 살아온 내가 장안구를 새롭게 이끌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외국인, 광주·전남 땅 보유 급증

신고제 전환 뒤 6배↑…토지취득 신고도 3~5배 늘어

광주·전남지역의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지시장이 신고제로 전환된 지난 98년 광주와 전남의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각각 57만6천㎡, 628만9천㎡였으나 지난 6월 말 현재 330만9천㎡, 3천766만2천㎡로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건수 역시 광주가 124건에서 332건으로 3배가량 급증했고, 전남도 역시 209건에서 1천100건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한편, 98년 외국인의 토지 취득 신고건수는 전국적으로 1만 건에 못 미치는 8천256건에 그쳤지만, 올 6월 말 현재 4만3천463건으로 426.44% 증가했다.

보유토지 면적 역시 같은 기간 5천91만2천㎡에서 2억1천590만3천㎡으로 324.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 증가율은 제주도가 98년 47만7천㎡에서 올해 1천172만5천㎡로 24.6배 늘어 1위를 기록했고, 그 다음은 경북 7.7배(375만5천㎡→2천881만천㎡), 강원도 6.8배(288만1천㎡→1천971만9천㎡) 등의 순이었다.

/최권일기자 cki@

산불을 막아라! 미국의 한 소방대원이 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라이트우드에서 발생한 산불을 막기 위해 맞불을 놓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전통식품 콜센터' 설립 추진

김치·떡 등 대표전화로 주문

광주시가 소비자들이 김치와 떡을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전통식품 콜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업체마다 개별적인 전화번호로 주문을 받는 것보다 콜센터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주문을 받으면 소비자들의 해당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업체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김치 공동브랜드인 '감칠배기'와 떡 공동브랜드인 '예담은'에 참여하는 김치, 떡 생산업체 16곳에 콜센터 참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광주시는 6~7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에 전남대콜센터 연구소에 센터장 등 직원 5~6명을 채용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운영비는 5년간 시와 해당 업체가 분담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운영기자 penfoot@

초대 민선 신안군수 "무안반도 통합 찬성"

박삼성 신안군의원도 찬성

목포와 무안, 신안군을 하나로 묶는 '무안반도 통합' 찬성 의견이 나와 통합 작업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손장조 신안군 초대 민선 군수와 신안군의회 박삼성(흑산) 의원은 5일 오전 목포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무안반도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전 군수는 회견문을 통해 "무안반도의 미래와 후손을 위해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섰다"면서 "재임 시절 두 번이나 추진한 통합에 신안군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해 준 것은 신안과 목포가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서로 합쳐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통합은 정부의 특별예산 지원액만 4천300억원에 이르는 등 그때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여건이 좋다"며 "통합되면 공무원 정원 10년간 보장과 특목고 설치 우선권, 해양수산관련 국가 연구소 우선 유치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 2016하계오륜 개최지 '리우' 확정…각국 지도자 명암

지난 3일(한국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2016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가 결정되자 룰라(가운데) 브라질 대통령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룰라 지지율 껑충 '삼바춤'

오바마 '본전도 못 찾아' 굴욕

이시하라 '公約' 물거품에 궁지

지난 3일(한국시간) 브라질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미항 리우데자네이루가 201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개최지 경쟁에 나섰던 국가 정치인들에게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올림픽 개최 경합 1차 투표에서는 마드리드가 28표로 깜짝 1위를 차지했고 리우데자네이루가 26표, 도쿄가 22표인 반면 시카고는 18표에 그쳐 탈락했다. 2차 투표에서는 시카고 지지표가 단연 리우데자네이루로 몰리면서 46표를 얻어 선두로 치고 나갔고 마드리드는 29표, 도쿄 20표에 그쳤다.

마지막 결선투표에서는 리우데자네이루가 66표를 획득, 32표에 그친 마드리드를 가볍게 제압하고 개최지로 최종 낙점됐다.

◇힘얻은 룰라=일간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 등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룰라 대통령이 전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 브라질 외교의 가장 목표 중 하나"라며 "그 어느때보다 상임이사국 진출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4일에는 벨기에 수도 브뤼셀을 방문, 에르만 반 롬푸이 벨기에 총리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개도국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유엔 개혁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해 이를 관철하기도 했다.

룰라는 2016년 올림픽 유치 성공으로 인한 자신감, 서민·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국내의 높은 인기를 얻어 외교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후폭풍 오바마=시카고의 2016년 하계올림픽 유치 실패로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특히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생명을 건 건강보험 개혁법안 처리를 앞둔 중대한 순간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총회가 열린 덴마크로 달려가 직접 유치홍보에 나섰으나 시카고 올림픽 유치에 실패함에 따라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고 분석했다.

미 언론의 반응은 한마디로 '대통령이 도대체 무엇을 생각했나'라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3일 '오바마의 패배의 쓰라림'이라는 기사에서 "시카고가 94표 가운데 18표밖에 얻지 못하고 1차 투표에서 나가떨어진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코펜하겐 방문이 성공적이지 않았을 뿐만 완전히 무의미했던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궁지몰린 이시하라=100억엔(한화 약 1천300억원)이라는 거액을 뿌리고도 올림픽 유치에 실패한 도쿄올림픽 유치위원장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가 궁지에 몰렸다.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은 올림픽 유치비용 150억엔 가운데 지난 3년간 100억엔을 쏟아부어 유치활동을 하고도 실패한 이시하라 도쿄도지사에 대해 민주당이 문제를 삼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박정욱기자jwpark@·연합뉴스